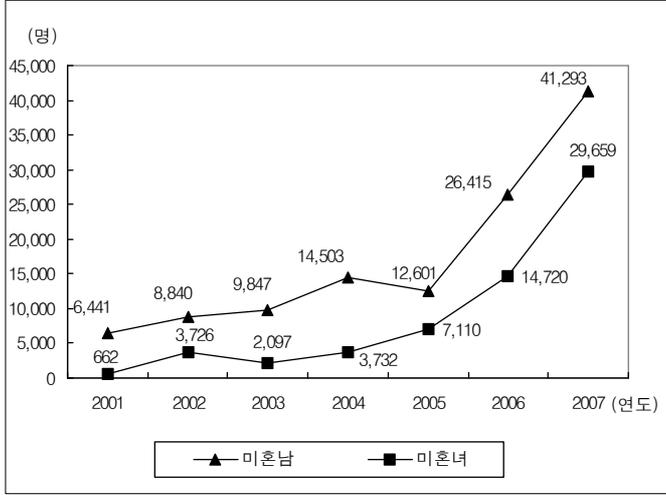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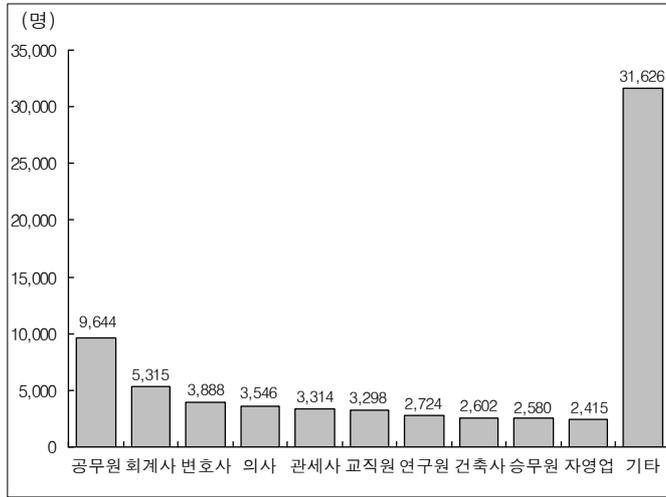


문 1. 다음 <그림>은 어느 도시의 미혼남과 미혼녀의 인원수 추이 및 미혼남녀의 직업별 분포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1> 2001 ~ 2007년 미혼남과 미혼녀의 인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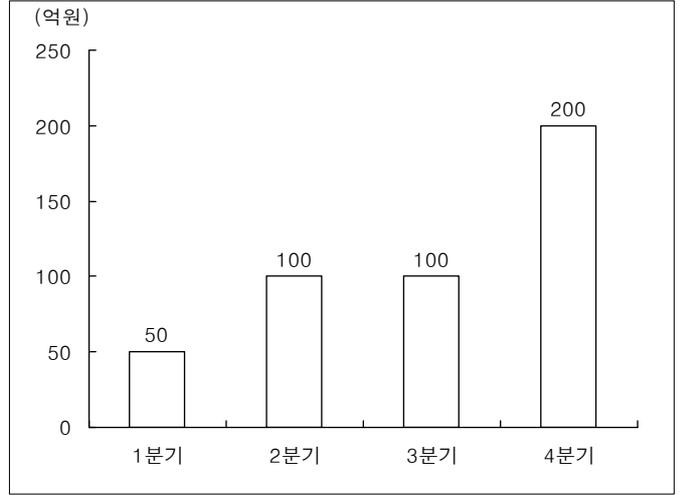
<그림 2> 2007년 미혼남녀의 직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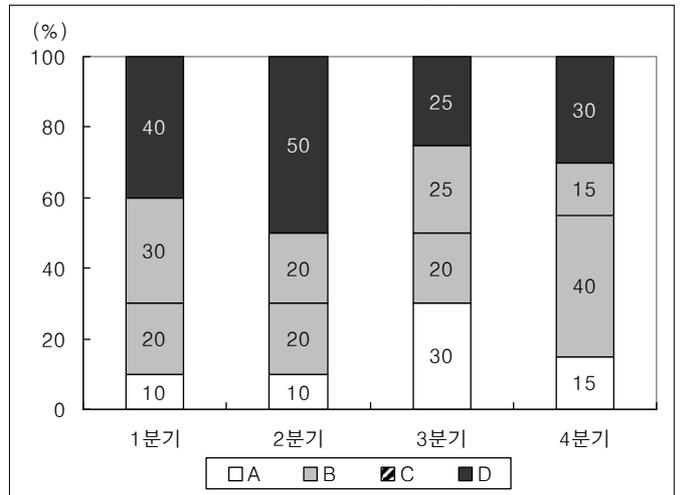
- ① 2004년 이후 미혼녀 인원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 ② 2007년 미혼녀 인원수는 2006년의 2배 이상이다.
- ③ 2007년 미혼녀와 미혼남의 인원수 차이는 2006년의 2배 이상이다.
- ④ 2007년 미혼남녀의 직업별 분포에서 공무원 수는 변호사 수의 2배 이상이다.
- ⑤ 2007년 미혼남녀의 직업별 분포에서 회계사 수는 승무원 수의 2배 이상이다.

문 2. 다음 <그림>은 2011년 영업팀 A ~ D의 분기별 매출액과 분기별 매출액에서 영업팀 A ~ D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A ~ D 중 2011년 연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팀과 가장 적은 영업팀을 순서에 상관없이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림 1> 영업팀 A ~ D의 분기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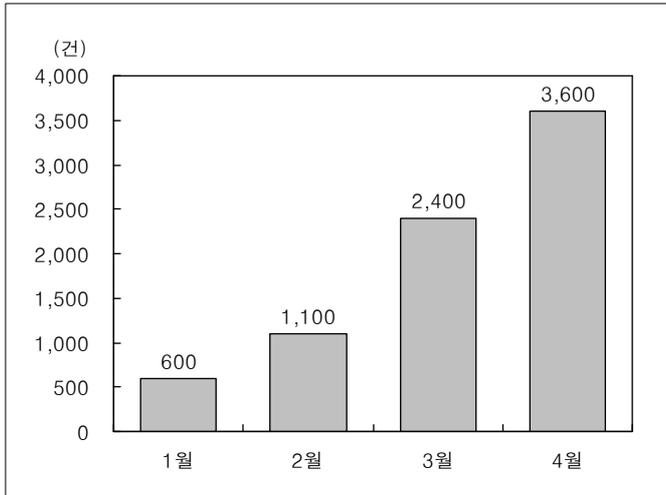
<그림 2> 분기별 매출액의 영업팀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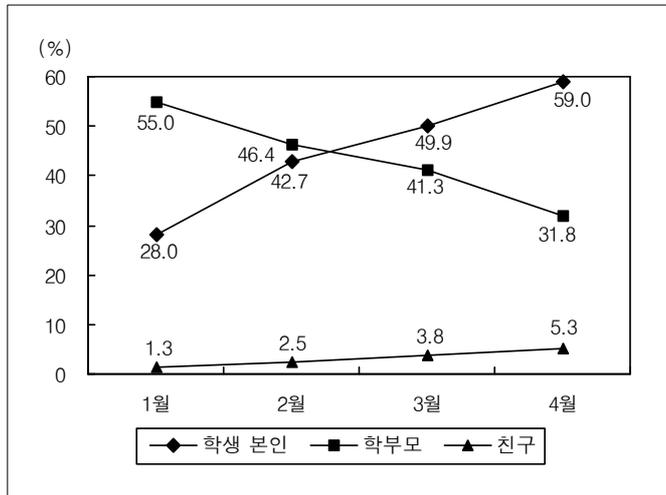
- ① A, B
- ② A, C
- ③ A, D
- ④ B, C
- ⑤ C, D

문 3. 다음 <그림>은 2012년 1~4월 동안 월별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1> 월별 학교폭력 신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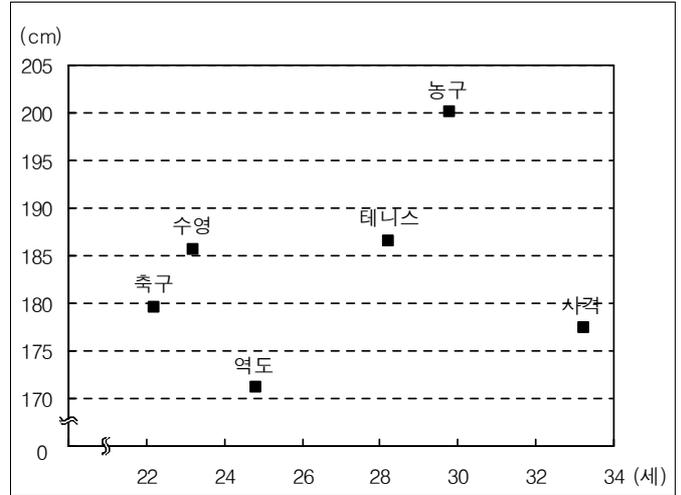
<그림 2> 월별 학교폭력 주요 신고자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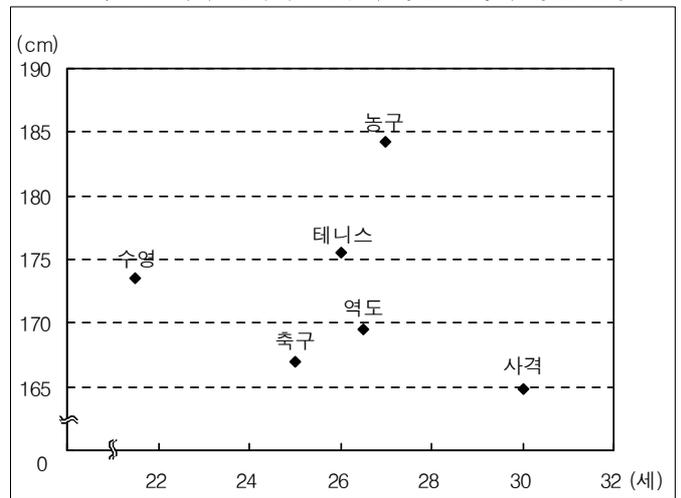
- ① 1월에 학부모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학생 본인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2배 이상이다.
- ② 학부모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매월 감소하였다.
- ③ 2~4월 중에서 전월대비 학교폭력 신고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달은 3월이다.
- ④ 학생 본인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1월이 4월의 10% 이상이다.
- ⑤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매월 증가하였다.

문 4. 다음 <그림>은 6가지 운동종목별 남자 및 여자 국가대표선수의 평균 연령과 평균 신장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1> 남자 국가대표선수의 평균 연령과 평균 신장



<그림 2> 여자 국가대표선수의 평균 연령과 평균 신장



<보 기>

- ㄱ. 평균 연령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남자 국가대표 선수의 종목 순서와 여자 국가대표선수의 종목 순서는 동일하다.
- ㄴ. 평균 신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남자 국가대표선수의 종목 순서와 여자 국가대표선수의 종목 순서는 동일하다.
- ㄷ. 종목별로 볼 때, 남자 국가대표선수의 평균 연령은 해당 종목 여자 국가대표선수의 평균 연령보다 높다.
- ㄹ. 종목별로 볼 때, 남자 국가대표선수의 평균 신장은 해당 종목 여자 국가대표선수의 평균 신장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문 5. 다음 <표>는 1991 ~ 2000년 5개국의 국가별 인구변동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보기>의 A ~ C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1> 국가별 출생률 (단위: 명)

연도 \ 국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아프가니스탄	48.3	50.7	52.6	53.2	51.6	50.8	48.9	47.1	49.7	41.8
아랍에미리트	49.8	47.5	43.6	38.6	33.0	30.5	29.5	27.9	21.0	18.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7.1	34.7	31.1	25.1	21.3	19.6	18.2	17.1	12.6	6.5
르완다	47.3	49.6	51.2	52.4	52.9	52.8	50.4	45.2	43.9	35.8
라이베리아	48.0	49.5	50.3	49.6	48.1	47.4	47.2	47.3	49.1	47.5

<표 2> 국가별 인구자연증가율 (단위: 명)

연도 \ 국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아프가니스탄	16.6	20.3	22.7	25.2	25.6	26.8	25.9	24.4	28.0	23.8
아랍에미리트	27.0	26.8	26.3	26.3	23.1	23.1	25.5	25.1	18.3	16.1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4.2	24.1	22.2	17.6	14.4	13.1	11.4	10.0	5.6	-9.0
르완다	24.0	27.3	29.8	31.6	32.4	32.6	31.7	27.8	-0.7	14.8
라이베리아	20.8	24.0	26.5	27.8	28.5	29.3	30.5	31.5	21.2	32.2

<보 기>

1991년 이후 인구자연증가율이 매년 감소한 나라는 (A) 이고, 1999년 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B)이다. 1991년 이후 출생률이 매년 감소한 나라는 (C)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이다.

- | | A | B | C |
|---|-------------|--------|--------|
| ①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라이베리아 | 아랍에미리트 |
| ②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아프가니스탄 | 아랍에미리트 |
| ③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아프가니스탄 | 르완다 |
| ④ | 아랍에미리트 | 라이베리아 | 아프가니스탄 |
| ⑤ | 아랍에미리트 | 라이베리아 | 르완다 |

문 6. 다음 <표>는 2013년 어느 금요일과 토요일 A 씨 부부의 전체 양육활동유형 9가지에 대한 참여시간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금요일과 토요일의 양육활동유형별 참여시간 (단위: 분)

유형	금요일		토요일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위생	48	4	48	8
식사	199	4	234	14
가사	110	2	108	9
정서	128	25	161	73
취침	55	3	60	6
배설	18	1	21	2
외출	70	5	101	24
의료간호	11	1	10	1
교육	24	1	20	3

- ① 토요일에 남편의 참여시간이 가장 많았던 양육활동유형은 정서활동이다.
- ② 아내의 총 양육활동 참여시간은 금요일에 비해 토요일에 감소하였다.
- ③ 남편의 양육활동 참여시간은 금요일에는 총 46분이었고, 토요일에는 총 140분이었다.
- ④ 금요일에 아내는 식사, 정서, 가사, 외출활동의 순으로 양육활동 참여시간이 많았다.
- ⑤ 아내의 양육활동유형 중 금요일에 비해 토요일에 참여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교육활동이다.

문 7. 다음 <표>는 A시 주철 수도관의 파손원인별 파손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A시 주철 수도관의 파손원인별 파손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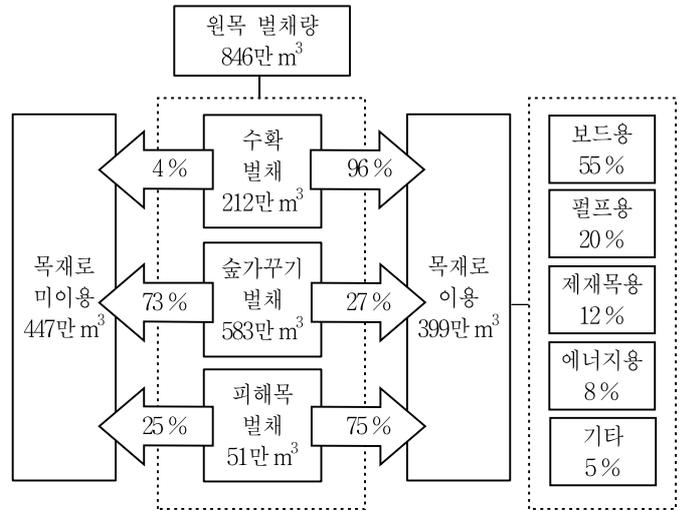
파손원인	주철 수도관 유형		합
	회주철	덕타일주철	
시설노후	105	71	176
부분 부식	1	10	11
수격압	51	98	149
외부충격	83	17	100
자연재해	1	1	2
재질불량	6	3	9
타공사	43	22	65
부설시공	1	4	5
보수과정 실수	43	6	49
계	334	232	566

※ 파손원인의 중복은 없음.

- ① 덕타일주철 수도관의 파손 건수가 50건 이상인 파손원인은 2가지이다.
- ② 회주철 수도관의 총 파손 건수가 덕타일주철 수도관의 총 파손 건수보다 많다.
- ③ 주철 수도관의 파손원인별 파손 건수에서 '자연재해' 파손 건수가 가장 적다.
- ④ 주철 수도관의 '시설노후' 파손 건수가 주철 수도관의 총 파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이다.
- ⑤ 회주철 수도관의 '보수과정 실수' 파손 건수가 회주철 수도관의 총 파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문 8. 다음 <그림>은 2011년 국내 원목 벌채와 이용의 흐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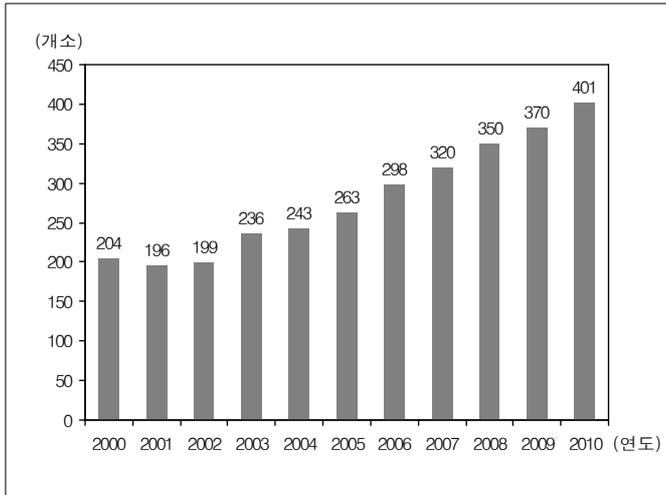
<그림> 2011년 국내 원목 벌채와 이용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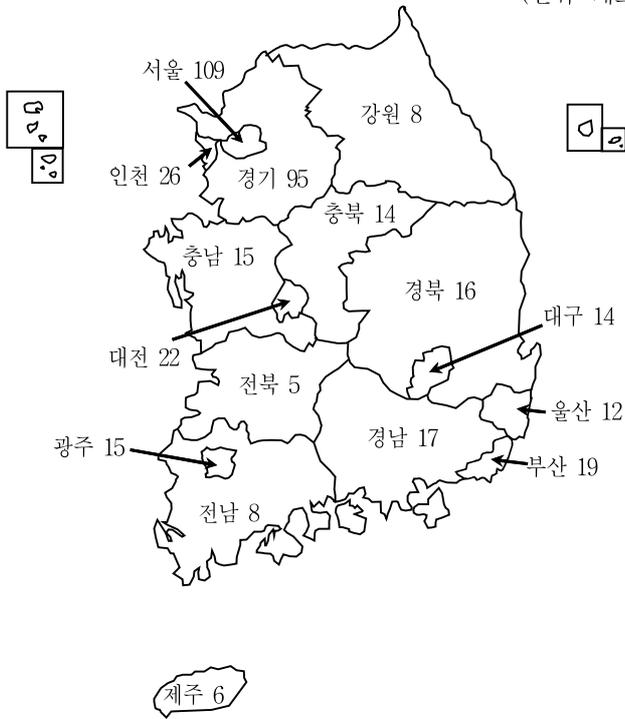
- ① 원목 벌채량 중 목재로 이용된 양이 목재로 미이용된 양보다 많았다.
- ② '숲가꾸기 벌채'로 얻은 원목이 목재로 이용된 원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③ 보드용으로 이용된 원목의 양은 200만 m³보다 적었다.
- ④ '수확 벌채'로 얻은 원목 중 적어도 일부는 보드용으로 이용되었다.
- ⑤ '피해목 벌채'로 얻은 원목 중 목재로 미이용된 양은 10만 m³보다 적었다.

문 9.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의 직장어린이집 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1> 2000 ~ 2010년 전국 직장어린이집 수



<그림 2> 2010년 지역별 직장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 ① 2000 ~ 2010년 동안 전국 직장어린이집 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 ② 2006년 대비 2008년 전국 직장어린이집 수는 20% 이상 증가하였다.
- ③ 2010년 인천 지역 직장어린이집 수는 2010년 전국 직장어린이집 수의 5% 이하이다.
- ④ 2000 ~ 2010년 동안 전국 직장어린이집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10% 이상인 연도는 2003년뿐이다.
- ⑤ 2010년 서울과 경기 지역 직장어린이집 수의 합은 2010년 전국 직장어린이집 수의 절반 이상이다.

문 10. 다음 <표>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연도별 세수 상위 세무서

(단위: 억원)

구분	1위		2위		3위	
	세무서	세수	세무서	세수	세무서	세수
2005년	남대문	70,314	울산	70,017	영등포	62,982
2006년	남대문	83,158	영등포	74,291	울산	62,414
2007년	남대문	105,637	영등포	104,562	울산	70,281
2008년	남대문	107,933	영등포	88,417	울산	70,332
2009년	남대문	104,169	영등포	86,193	울산	64,911

<표 2> 연도별 세수 하위 세무서

(단위: 억원)

구분	1위		2위		3위	
	세무서	세수	세무서	세수	세무서	세수
2005년	영주	346	영덕	354	홍성	369
2006년	영주	343	영덕	385	홍성	477
2007년	영주	194	영덕	416	거창	549
2008년	영주	13	해남	136	영덕	429
2009년	해남	166	영덕	508	홍성	540

<보고서>

2009년 세수 1위 세무서는 10조 4,169억원(국세청 세입의 약 7%)을 거두어들이는 남대문세무서이다. 한편, 2위와 3위는 각각 영등포세무서(8조 6,193억원), 울산세무서(6조 4,911억원)로 2006년 이후 순위변동이 없었다.

2009년 세수 최하위 세무서는 해남세무서(166억원)로 남대문세무서 세수 규모의 0.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는 도봉세무서의 세수 규모가 2,862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입은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원에서 2009년 154조 3,305억원으로 약 2,200배 증가하였으며, 전국 세무서 수는 1966년 77개에서 1997년 136개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107개로 감소하였다.

<보 기>

- ㄱ. 1966 ~ 2009년 연도별 국세청 세입액
- ㄴ. 2009년 국세청 세입총액의 세원별 구성비
- ㄷ. 2009년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수 규모
- ㄹ. 1966 ~ 2009년 연도별 전국 세무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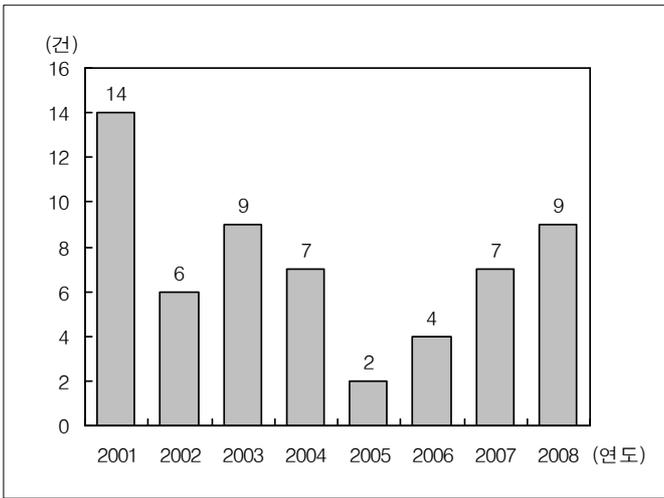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11. 다음 <표>와 <그림>은 2001 ~ 2008년 동안 A국의 비행단계별, 연도별 항공기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비행단계별 항공기사고 발생 건수(2001 ~ 2008년)
(단위: 건, %)

단계	발생 건수	비율
지상이동	4	6.9
이륙	2	3.4
상승	7	12.1
순항	22	37.9
접근	6	10.3
착륙	17	29.4
계	58	100.0

<그림> 연도별 항공기사고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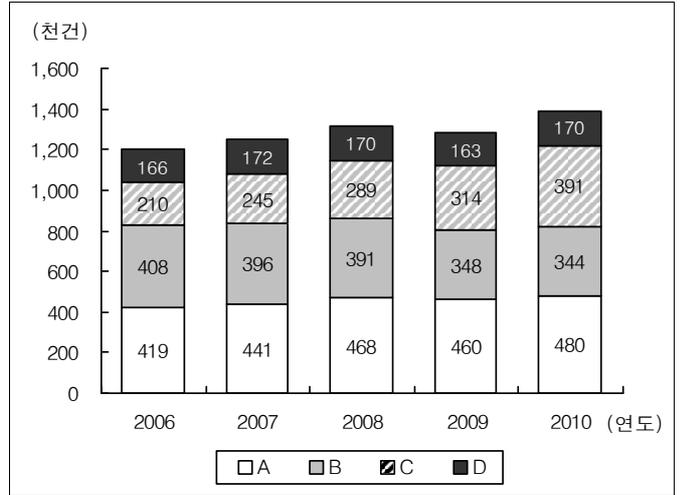
<보 기>

- ㄱ. 2005년 이후 항공기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 ㄴ. 비행단계별 항공기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순항, 착륙, 접근, 상승 순이다.
- ㄷ. 순항단계와 착륙단계의 항공기사고 발생 건수의 합은 총 항공기사고 발생 건수의 60% 이상이다.
- ㄹ. 2006 ~ 2008년 동안 항공기사고 발생 건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매년 100%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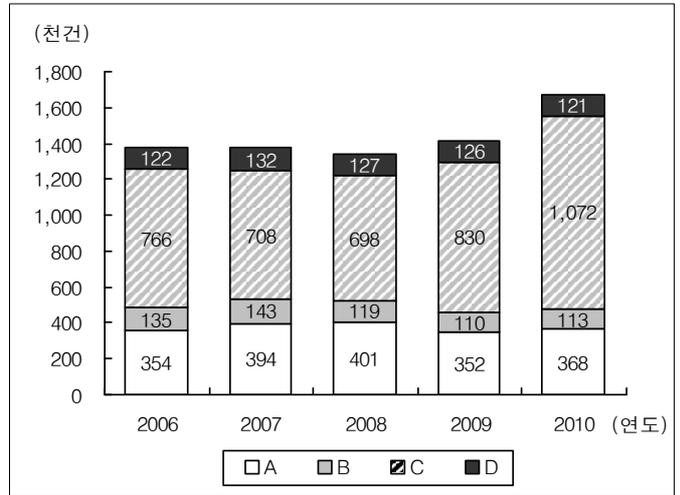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 12. 다음 <그림>은 2006 ~ 2010년 A ~ D국의 특허 및 상표출원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이용하여 A ~ D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림 1> 연도별·국가별 특허출원 건수



<그림 2> 연도별·국가별 상표출원 건수



<보 기>

- 2006년 대비 2010년 특허출원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이다.
- 2007년 대비 2010년 특허출원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일본이다.
- 2007년 이후 한국의 상표출원 건수는 매년 감소하였다.
- 2010년 상표출원 건수는 미국이 일본보다 10만건 이상 많다.

- | | A | B | C | D |
|---|----|----|----|----|
| ① | 한국 | 일본 | 중국 | 미국 |
| ② | 미국 | 일본 | 중국 | 한국 |
| ③ | 중국 | 한국 | 미국 | 일본 |
| ④ | 중국 | 미국 | 한국 | 일본 |
| ⑤ | 미국 | 중국 | 일본 | 한국 |

문 13. 다음 <표>와 <그림>은 2010년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별 교통 관련 현황 및 행정구역도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0년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별 교통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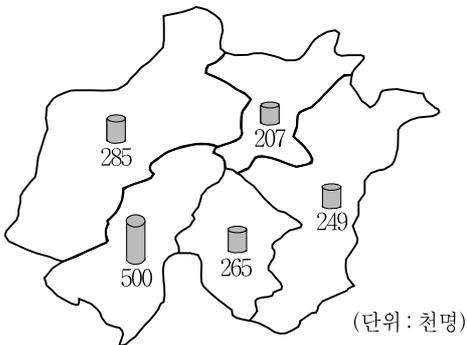
구분 \ 행정구역	전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구(천명)	1,506	249	265	500	285	207
가구수(천가구)	557	99	101	180	102	75
주차장 확보율(%)	81.5	78.6	68.0	87.2	90.5	75.3
승용차 보유대수(천대)	569	84	97	187	116	85
가구당 승용차 보유대수(대)	1.02	0.85	0.96	1.04	1.14	1.13
승용차 통행 발생량(만통행)	179	28	32	61	33	25
화물차 수송 도착량에 대한 화물차 수송 발생량 비율(%)	51.5	46.8	36.0	30.1	45.7	91.8

※ 승용차 1대당 통행발생량(통행) = $\frac{\text{승용차 통행발생량}}{\text{승용차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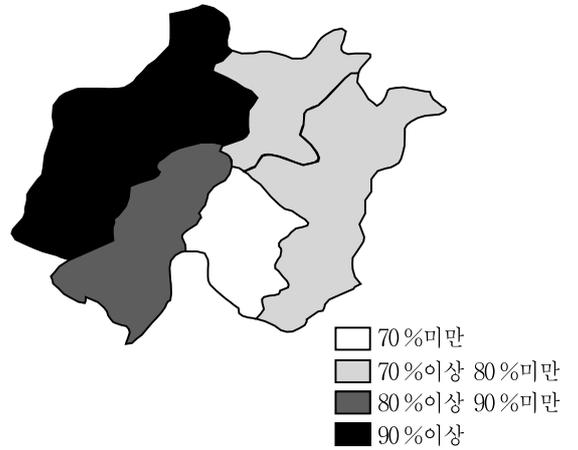
<그림>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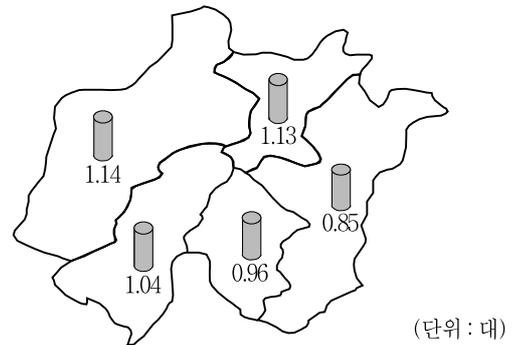
① 행정구역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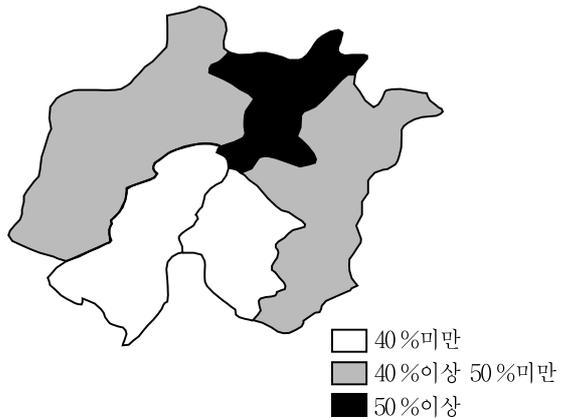
② 행정구역별 주차장 확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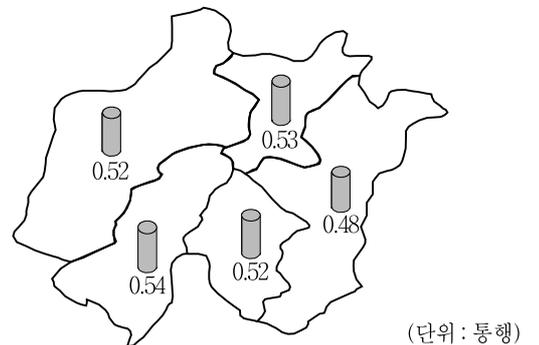
③ 행정구역별 가구당 승용차 보유대수



④ 행정구역별 화물차 수송도착량에 대한 화물차 수송발생량 비율



⑤ 행정구역별 승용차 1대당 통행발생량



문 14. 다음 <표>는 어느 나라의 세목별 징수세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을 이용하여 A ~ D에 해당하는 세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세목별 징수세액 (단위: 억원)

세목	연도	1989	1999	2009
	소득세		35,569	158,546
법인세		31,079	93,654	352,514
A		395	4,807	12,207
증여세		1,035	4,205	12,096
B		897	10,173	10,163
C		52,602	203,690	469,915
개별소비세		12,570	27,133	26,420
주세		8,930	20,780	20,641
전화세		2,374	11,914	11,910
D		4,155	13,537	35,339

<보 기>

- 1989년 징수세액이 5,000억원보다 적은 세목은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전화세, 증권거래세, 증여세이다.
- 1989년에 비해 1999년에 징수세액이 10배 이상 증가한 세목은 상속세와 자산재평가세이다.
- 1999년에 비해 2009년에 징수세액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이다.

- | | | | | |
|---|----------|----------|----------|----------|
| | <u>A</u> | <u>B</u> | <u>C</u> | <u>D</u> |
| ① | 상속세 | 자산재평가세 | 부가가치세 | 증권거래세 |
| ② | 상속세 | 증권거래세 | 자산재평가세 | 부가가치세 |
| ③ | 자산재평가세 | 상속세 | 부가가치세 | 증권거래세 |
| ④ | 자산재평가세 | 부가가치세 | 상속세 | 증권거래세 |
| ⑤ | 증권거래세 | 상속세 | 부가가치세 | 자산재평가세 |

문 15. 다음 <표>는 어느 노래의 3월 24 ~ 27일 음원차트별 순위에 대한 자료 중 일부가 지워진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음원차트별 순위

날짜	음원차트					평균 순위
	A	B	C	D	E	
3월 24일	□(↑)	6(↑)	□(↑)	4(↑)	2(↑)	4.2
3월 25일	6(↑)	2(↑)	2(-)	2(↑)	1(↑)	2.6
3월 26일	7(↓)	6(↓)	5(↓)	6(↓)	5(↓)	5.8
3월 27일	□(-)	□(↑)	□(□)	7(↓)	□(-)	6.0

- * 1) □는 지워진 자료를 의미하며, ()안의 ↑는 전일대비 순위 상승, ↓는 전일대비 순위 하락, -는 전일과 순위가 동일함을 의미함.
- 2) 순위의 숫자가 작을수록 순위가 높음을 의미함.
- 3) 평균 순위 = $\frac{5\text{개 음원차트별 순위의 합}}{5}$

- ① 평균 순위가 가장 높았던 날은 5개 음원차트별 순위가 전일 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 ② 3월 24일 A 음원차트에서의 순위는 8위였다.
- ③ 5개 음원차트별 순위가 전일대비 모두 하락한 날은 평균 순위가 가장 낮았다.
- ④ 3월 27일 C 음원차트에서는 순위가 전일대비 하락하였다.
- ⑤ 평균 순위는 매일 하락하였다.

문 16. 다음 <표>는 2000 ~ 2007년 7개 도시 실질 성장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7개 도시 실질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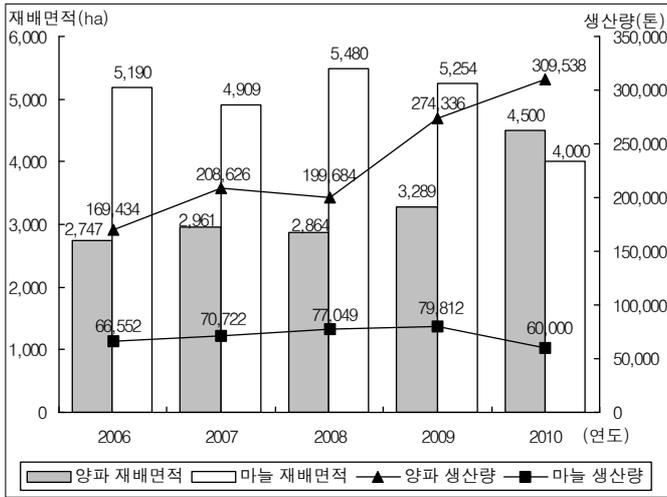
(단위: %)

연도/도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울	9.0	3.4	8.0	1.3	1.0	2.2	4.3	4.4
부산	5.3	7.9	6.7	4.8	0.6	3.0	3.4	4.6
대구	7.4	1.0	4.4	2.6	3.2	0.6	3.9	4.5
인천	6.8	4.9	10.7	2.4	3.8	3.7	6.8	7.4
광주	10.1	3.4	9.5	1.6	1.5	6.5	6.5	3.7
대전	9.1	4.6	8.1	7.4	1.6	2.6	3.4	3.2
울산	8.5	0.5	15.8	2.6	4.3	4.6	1.9	4.6

- ① 2005년 서울, 부산, 광주의 실질 성장률은 각각 2004년의 2배 이상이다.
- ② 2004년과 2005년 실질 성장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동일하다.
- ③ 2001년 각 도시의 실질 성장률은 200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 ④ 2002년 대비 2003년 실질 성장률이 5%p 이상 감소한 도시는 모두 3개이다.
- ⑤ 2000년 실질 성장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2007년에는 실질 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문 17. 다음 <그림>은 2006 ~ 2010년 동남권의 양파와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2010년, 2011년 동남권의 양파와 마늘 재배면적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동남권의 양파와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표> 동남권의 양파와 마늘 재배면적의 지역별 분포 (단위: ha)

재배작물	지역	연도	
		2010	2011
양파	부산	56	40
	울산	()	()
	경남	4,100	4,900
	소계	()	5,100
마늘	부산	24	29
	울산	42	66
	경남	3,934	4,905
	소계	4,000	5,000

※ 동남권은 부산, 울산, 경남으로만 구성됨.

- ① 2006 ~ 2010년 동안 동남권의 마늘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였다.
- ② 2006 ~ 2010년 동안 동남권의 단위 재배면적당 양파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였다.
- ③ 2011년 울산의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④ 2006 ~ 2011년 동안 동남권의 마늘 재배면적은 양파 재배면적보다 매년 크다.
- ⑤ 2011년 동남권의 단위 재배면적당 마늘 생산량이 2010년과 동일하다면 2011년 동남권의 마늘 생산량은 75,000톤이다.

문 18. 다음 <표>는 ‘갑’사 공채 지원자에 대한 평가 자료이다. 이 <표>와 <평가점수와 평가등급의 결정방식>에 근거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갑’사 공채 지원자 평가 자료

(단위: 점)

지원자	구분	창의성 점수	성실성 점수	체력 점수	최종 학위	평가 점수
가		80	90	95	박사	()
나		90	60	80	학사	310
다		70	60	75	석사	300
라		85	()	50	학사	255
마		95	80	60	학사	295
바		55	95	65	학사	280
사		60	95	90	석사	355
아		80	()	85	박사	375
자		75	90	95	석사	()
차		60	70	()	학사	290

<평가점수와 평가등급의 결정방식>

- 최종학위점수는 학사 0점, 석사 1점, 박사 2점임.
- 지원자 평가점수 = 창의성점수 + 성실성점수 + 체력점수×2 + 최종학위점수×20
-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S	350점 이상
A	300점 이상 350점 미만
B	300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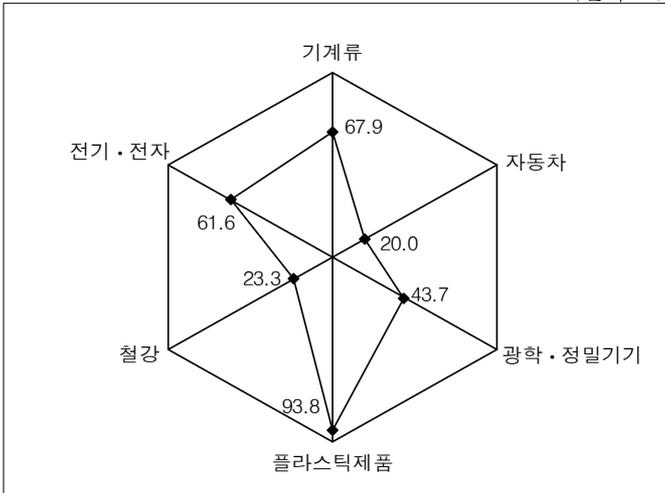
- ① ‘가’의 평가점수는 400점으로 지원자 중 가장 높다.
- ② ‘라’의 성실성점수는 ‘다’보다 높지만 ‘마’보다는 낮다.
- ③ ‘아’의 성실성점수는 ‘라’와 같다.
- ④ S등급인 지원자는 4명이다.
- ⑤ ‘차’는 체력점수를 원래 점수보다 5점 더 받으면 A등급이 된다.

문 19. 다음 <표>와 <그림>은 1991년과 2010년의 품목별 항만 수출 실적 및 A항만 처리 분담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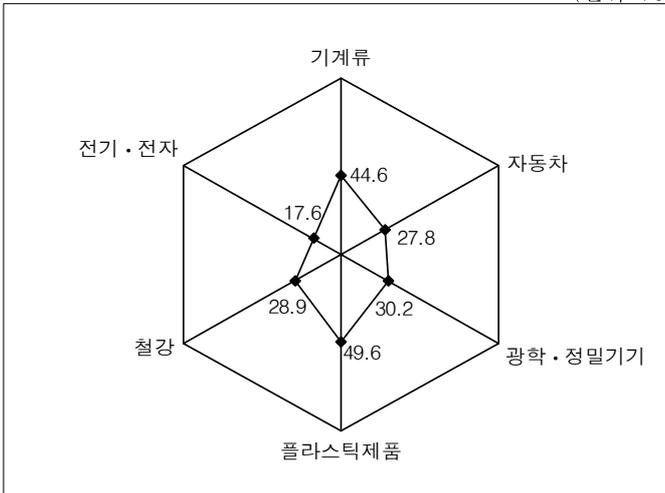
<표> 품목별 항만 수출 실적 (단위: 백만달러)

품목	1991년		2010년	
	총 항만 수출액	A항만 수출액	총 항만 수출액	A항만 수출액
전기·전자	16,750	10,318	110,789	19,475
기계류	6,065	4,118	52,031	23,206
자동차	2,686	537	53,445	14,873
광학·정밀기기	766	335	37,829	11,415
플라스틱제품	1,863	1,747	23,953	11,878
철강	3,287	766	21,751	6,276
계	31,417	17,821	299,798	87,123

<그림 1> 1991년 품목별 A항만 처리 분담률 (단위: %)



<그림 2> 2010년 품목별 A항만 처리 분담률 (단위: %)



※ 해당 항만 처리 분담률(%) = $\frac{\text{해당 항만 수출액}}{\text{총 항만 수출액}} \times 100$

<보 기>

- ㄱ. 품목별 총 항만 수출액과 A항만 수출액은 1991년 대비 2010년에 각각 증가하였다.
- ㄴ. A항만 처리 분담률이 1991년 대비 2010년에 감소한 품목은 모두 4개이다.
- ㄷ. 1991년 대비 2010년의 A항만 수출액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자동차이다.
- ㄹ. 플라스틱제품의 A항만 처리 분담률은 1991년 대비 2010년에 70% 이상 감소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문 20. 다음 <표>는 시설유형별 에너지 효율화 시장규모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시설유형별 에너지 효율화 시장규모의 현황 및 전망 (단위: 억달러)

연도 \ 시설유형	2010	2011	2012	2015(예상)	2020(예상)
사무시설	11.3	12.8	14.6	21.7	41.0
산업시설	20.8	23.9	27.4	41.7	82.4
주거시설	5.7	6.4	7.2	10.1	18.0
공공시설	2.5	2.9	3.4	5.0	10.0
전체	40.3	46.0	52.6	78.5	151.4

- ① 2010 ~ 2012년 동안 '주거시설' 유형의 에너지 효율화 시장 규모는 매년 15% 이상 증가하였다.
- ② 2015년 전체 에너지 효율화 시장규모에서 '사무시설'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하일 것으로 전망된다.
- ③ 2015 ~ 2020년 동안 '공공시설' 유형의 에너지 효율화 시장 규모는 매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④ 2011년 '산업시설' 유형의 에너지 효율화 시장규모는 전체 에너지 효율화 시장규모의 50% 이하이다.
- ⑤ 2010년 대비 2020년 에너지 효율화 시장규모의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시설유형은 '산업시설'이다.

문 21. 다음은 1995년과 2007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및 교통비지출액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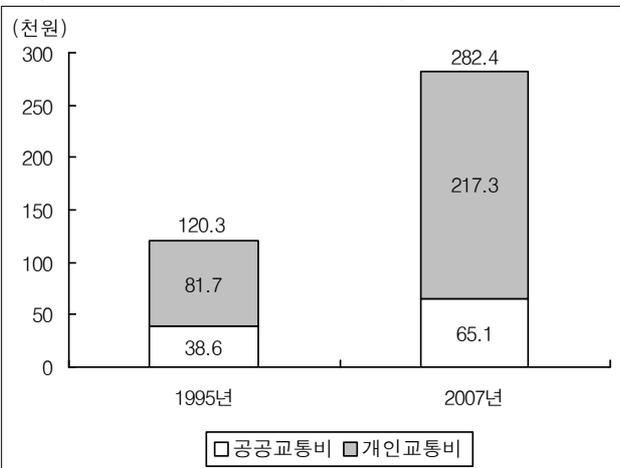
—<보고서>—

-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995년 1,231천원에서 2007년 2,349천원으로 증가하였다.
-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교통비지출액은 1995년 120.3천원에서 2007년 282.4천원으로 증가하였다.
-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교통비지출액 비중이 큰 세부항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1995년에는 자동차구입(29.9%), 연료비(21.9%), 버스(18.3%), 보험료(7.9%), 택시(7.1%)의 순이었으나, 2007년에는 연료비(39.0%), 자동차구입(23.3%), 버스(12.0%), 보험료(6.2%), 정비 및 수리비(3.7%)의 순으로 변동되었다.
- 사무직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교통비지출액은 1995년 151.8천원에서 2007년 341.4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생산직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교통비지출액은 1995년 96.3천원에서 2007년 233.1천원으로 증가하였다.
- 1995년과 2007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교통비지출액 비중의 차이는 소득 10분위가 소득 1분위보다 작았다.

① 소득분위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교통비지출액 현황 (단위: 천원, %)

소득분위	소비지출액 (A)		교통비지출액 (B)		교통비지출액 비중($\frac{B}{A} \times 100$)	
	1995년	2007년	1995년	2007년	1995년	2007년
1분위	655.5	1,124.8	46.1	97.6	7.0	8.7
2분위	827.3	1,450.6	64.8	149.2	7.8	10.3
3분위	931.1	1,703.2	81.4	195.8	8.7	11.5
4분위	1,028.0	1,878.7	91.8	210.0	8.9	11.2
5분위	1,107.7	2,203.2	108.4	285.0	9.8	12.9
6분위	1,191.8	2,357.9	114.3	279.3	9.6	11.8
7분위	1,275.0	2,567.6	121.6	289.1	9.5	11.3
8분위	1,441.4	2,768.8	166.1	328.8	11.5	11.9
9분위	1,640.0	3,167.2	181.4	366.4	11.1	11.6
10분위	2,207.0	4,263.7	226.7	622.5	10.3	14.6

②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교통비지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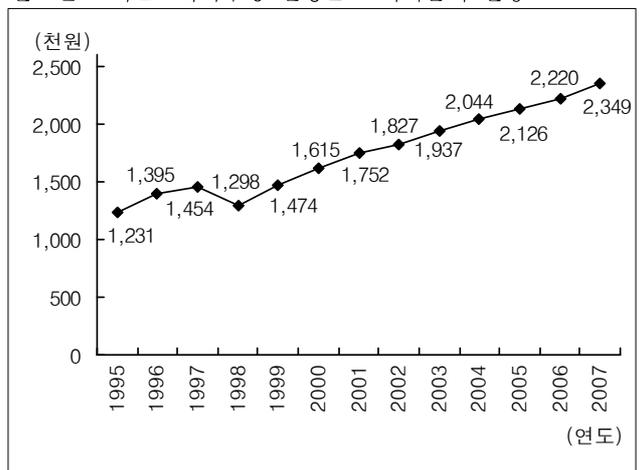
③ 세부항목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교통비지출액 현황 (단위: 원, %)

세부항목	1995년		2007년	
	지출액	비중	지출액	비중
버스	22,031	18.3	33,945	12.0
지하철 및 전철	3,101	2.6	9,859	3.5
택시	8,562	7.1	9,419	3.3
기차	2,195	1.8	2,989	1.1
자동차임차료	212	0.2	346	0.1
화물운송료	1,013	0.8	3,951	1.4
항공	1,410	1.2	4,212	1.5
기타공공교통	97	0.1	419	0.1
자동차구입	35,923	29.9	65,895	23.3
오토바이구입	581	0.5	569	0.2
자전거구입	431	0.4	697	0.3
부품 및 관련용품구입	1,033	0.9	4,417	1.6
연료비	26,338	21.9	110,150	39.0
정비 및 수리비	5,745	4.8	10,478	3.7
보험료	9,560	7.9	17,357	6.2
주차료	863	0.7	1,764	0.6
통행료	868	0.7	4,025	1.4
기타개인교통	310	0.2	1,902	0.7

④ 직업형태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교통비지출액 현황 (단위: 천원)

직업형태	교통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무직	공공	39.8	54.1	62.5
	개인	112.0	190.5	240.9	254.1	274.4
	소계	151.8	244.6	303.4	318.5	341.4
생산직	공공	37.7	52.3	61.5	61.7	63.6
	개인	58.6	98.6	124.1	147.2	169.5
	소계	96.3	150.9	185.6	208.9	233.1

⑤ 연도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 현황



문 22. 다음 <표>는 4개 국가의 여성과 남성의 흡연율과 기대수명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여성과 남성의 흡연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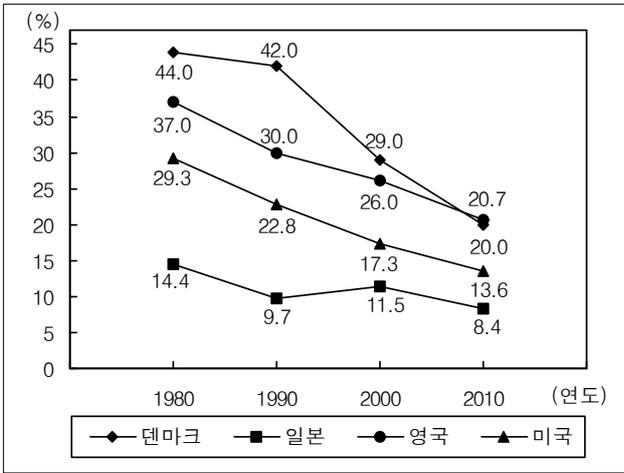
연도	1980		1990		2000		2010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덴마크	44.0	57.0	42.0	47.0	29.0	33.5	20.0	20.0
일본	14.4	54.3	9.7	53.1	11.5	47.4	8.4	32.2
영국	37.0	42.0	30.0	31.0	26.0	28.0	20.7	22.3
미국	29.3	37.4	22.8	28.4	17.3	21.2	13.6	16.7

<표 2>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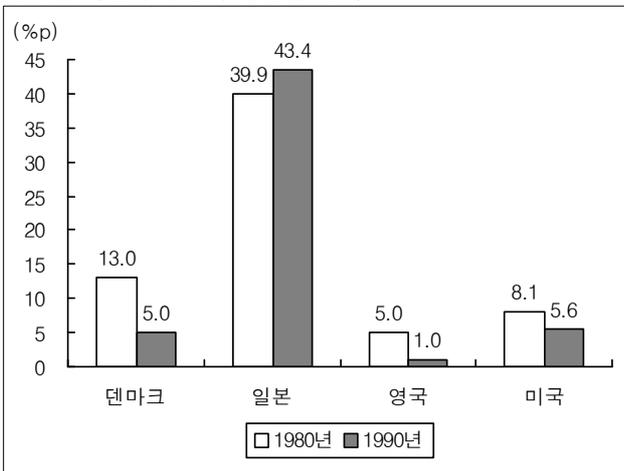
(단위: 세)

연도	1980		1990		2000		2010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덴마크	77.3	71.2	77.8	72.0	79.2	74.5	81.4	77.2
일본	78.8	73.3	81.9	75.9	84.6	77.7	86.4	79.6
영국	76.2	70.2	78.5	72.9	80.3	75.5	82.6	78.6
미국	77.4	70.0	78.8	71.8	79.3	74.1	81.1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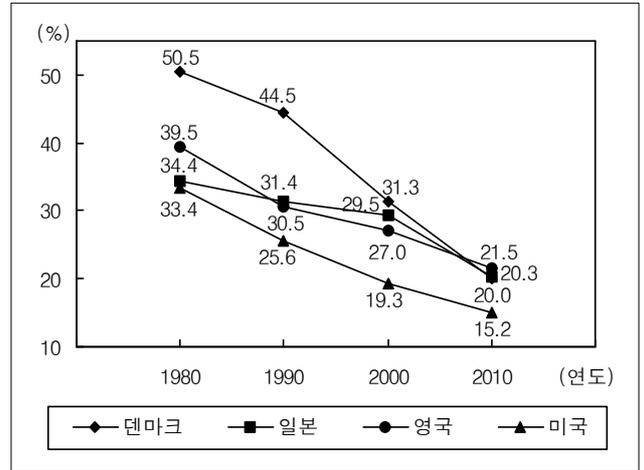
① 국가별 여성의 흡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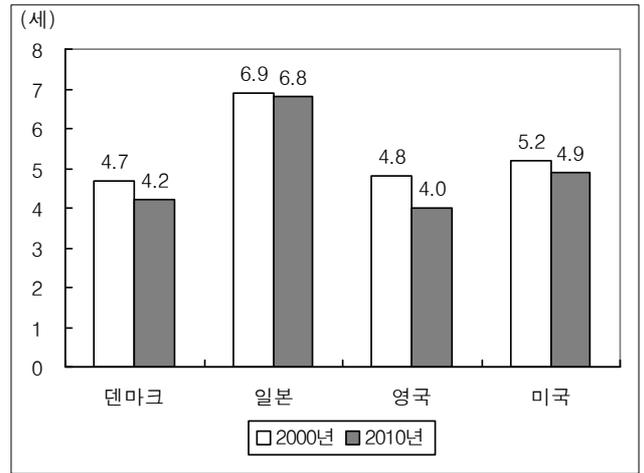
② 국가별 여성과 남성의 흡연율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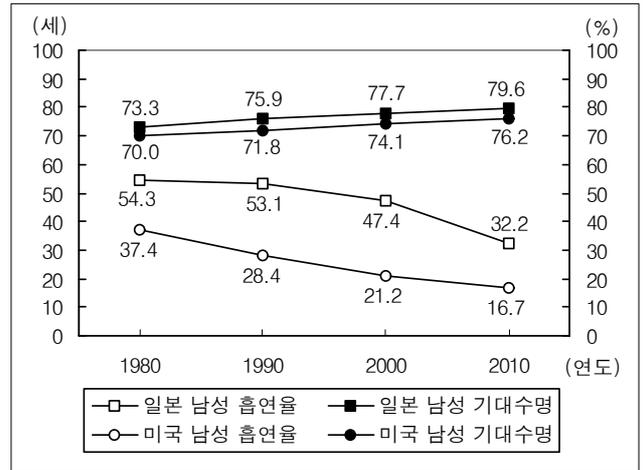
③ 국가별 흡연율



④ 국가별 여성과 남성의 기대수명 차이



⑤ 일본 남성과 미국 남성의 흡연율과 기대수명



문 23. 다음 <표>는 ‘갑’국의 2012년 지급유형별·아동월령별 양육수당 월 지급금액과 신청가구별 아동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 <표>와 <2012년 양육수당 지급조건>에 근거하여 2012년 5월분의 양육수당이 많은 가구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2년 양육수당 지급조건>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양육수당 신청시점의 지급유형 및 아동월령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함.
-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별 양육수당은 수급가능한 모든 자녀의 양육수당을 합한 금액임.
- 양육수당은 매월 15일에 신청받아 해당 월 말일에 지급함.

<표 1> 지급유형별·아동월령별 양육수당 월 지급금액 (단위: 만원)

지급유형	아동월령 12개월 이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초과 36개월 이하	초과 48개월 이하	초과 60개월 이하
일반	20.0	15.0	10.0	10.0	10.0
농어촌	20.0	17.7	15.6	12.9	10.0
장애아동	22.0	20.5	18.0	16.5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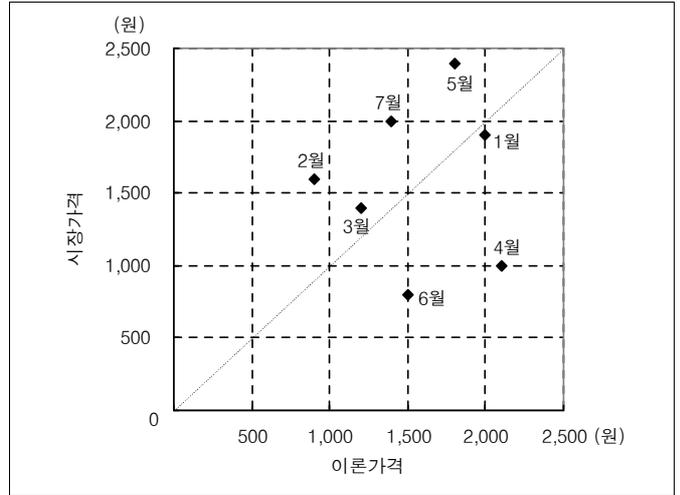
<표 2> 신청가구별 아동 현황(2012년 5월 15일 현재)

신청 가구	자녀		지급 유형	비고
	구분	아동월령 (개월)		
가	A	22	일반	
나	B	16	농어촌	
	C	2	농어촌	
다	D	23	장애아동	
라	E	40	일반	
	F	26	일반	
마	G	58	일반	2011년 1월부터 해외 체류 중
	H	35	일반	
	I	5	일반	

- ① 나-마-다-라-가
- ② 나-마-라-다-가
- ③ 다-라-나-마-가
- ④ 마-나-라-가-다
- ⑤ 마-나-다-라-가

문 24. 다음 <그림>은 1~7월 동안 A사 주식의 이론가격과 시장가격의 관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A사 주식의 이론가격과 시장가격의 관계



※ 해당 월 가격 괴리율(%) = $\left(\frac{\text{해당 월 시장가격} - \text{해당 월 이론가격}}{\text{해당 월 이론가격}} \right) \times 100$

<보 기>

- ㄱ. 가격 괴리율이 0% 이상인 달은 4개이다.
- ㄴ. 전월대비 이론가격이 증가한 달은 3월, 4월, 7월이다.
- ㄷ. 전월대비 가격 괴리율이 증가한 달은 3개 이상이다.
- ㄹ. 전월대비 시장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달은 6월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 25. 다음 <표>는 '갑'국 개인 A ~ D의 연소득에 대한 자료이고, 개인별 소득세산출액은 <소득세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이를 근거로 A ~ D 중 소득세산출액이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적은 사람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개인별 연소득 현황

(단위: 만원)

개인	근로소득	금융소득
A	15,000	5,000
B	25,000	0
C	20,000	0
D	0	30,000

- ※ 1)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은 존재하지 않음.
- 2)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이고, 어떤 종류의 공제·감면도 존재하지 않음.

— <소득세 결정기준> —

- 5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의 '금융소득세'를 부과함.
- 과세표준은 금융소득 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근로소득의 합이고, <과세표준에 따른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 소득세산출액은 '금융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합임.

<과세표준에 따른 근로소득세율>

(단위: %)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분	5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1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	1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분	20
2억원 초과분	25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500만원인 사람의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음.

$$1,000\text{만원} \times 5\% + (2,500\text{만원} - 1,000\text{만원}) \times 10\% = 200\text{만원}$$

가장 많은 사람

가장 적은 사람

- ① A B
- ② A D
- ③ B A
- ④ D A
- ⑤ D C